

영화 '7년의 밤', 원작과 다른 매력보일까



배우 류승룡·장동건 남다른 자신감 등 표해 정유정 작가 베스트셀러·추창민 감독 작품

배우 류승룡과 장동건이 영화 '7년의 밤'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과 기대감을 표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진행된 영화 '7년의 밤' 제작보고회에는 추창민 감독과 배우 류승룡, 장동건, 고경표가 참석했다. '7년의 밤'은 한 순간의 우발적 살인으로 모든 걸 잃게 된 남자 최

현수(류승룡 분)와 그로 인해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 오영제(장동건 분)의 7년 전의 진실과 그 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7년의 밤'은 '광해, 왕이 된 남자' 추창민 감독과 류승룡, 장동건, 송세벽, 고경표 등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창민 감독은 '7년의 밤' 제작 계기로 "광해" 이후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결과 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걸 하고 싶었다. 기존까지 했던 작품이 인간의 선의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다른 본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중 가장 부합한 게 '7년의 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작과 관련해 "원작을 보고 작품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다. 원작 만큼, 원작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워낙 원작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원작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본적으로 따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단순한 현상이 아닌 내면의 숨겨진 모습을, 심리, 지나온 과거들을 영화 속에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더 과거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관객들이 본다면 그 짐을 더 유쾌하게 본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된 남자 최현수 역을 맡은 류승룡은 '7년의 밤' 출연을 결정한 이유로 "소설을 읽고 영화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다음 장이 기대됐다. 다행히 영화로 만들어지고, 가장 신뢰하는 추창민 감독의 작품이라서 출연하게 됐다"면서 "출연을 제안 받고 영광이면서 두려움도 느꼈다. 쉽지 않았구나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를 하면서 중점 둔 부분으로 "반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고민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효과적이고, 최현수다운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선과 악의 교묘한 경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얘기했다. 장동건은 딸을 잃고 지독한 복수를 꾸미는 남자 오영제 역을 맡았다. 그는 캐릭터를 위해 'M자 머리'를 하는 등 강렬한 변신을 시도했다. 장동건은 "오영제의 외형을 상의하면서 다양한 것을 시도했다. 원작을 읽었을 때 처음 느낀 이미지가 사프하고 날카롭고 예민한 거였다. 그래서 머리로 사프하게 넘기기도 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안경도 썼는데, 뻘한 느낌이 났다. 그때 감독님이 M자탈모를 해보라고 해서 농담인 줄 알았다. '뿔' 그렇게 까

지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들었다. 완성되고 나니까 저 같지 않은 낯선 느낌이 비로소 들었다. 당시 감독님과 만난지 얼마 안됐을 때인데, 저한테 "동건 씨는 가면을 쓰면 연기하기 편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고 하셨다. 감독님의 시도를 보고 '이 감독님이 하는 건 무조건 믿고 따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동건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치 안에서 모두 다 소신한 것 같다. 아쉬움이 없다"면서 "영화가 잘 전달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의 마음에는 안들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진심으로 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복수의 희생양이 된 살인자의 아들 최서원 역을 맡은 고경표는 류승룡과 부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춘 점에 대해 "오랜만에 만난 애들함을 갖기 위해 신념을 사신을 뺏아서 집에 걸어놓고 대본연습을 했다. 실제로 만났을 때 그게 잘 전달됐었다"고 털어놴다.

트와이스, 日 골드 디스크 대상서 5관왕 차지

그들 트와이스가 제3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5관왕을 석권하며 '아시아 원톱 걸그룹'의 위상을 입증했다. 27일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홈페이지가 공개한 수상 내역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아시아 부분의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New Artist of the year)', 베스트 3 뉴 아티스트(Best 3 New Artist), 앨범 '#트와이스(TWICE)'로 '앨범 오브 더 이어(Album of the year)' 및 베스트 3 앨범(Best 3 Album), '티티

(TT)'의 일본어 버전으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Song of the year by download)'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이 시상식에서 아시아 신인 아티스트가 5관왕에 오른 것은 트와이스가 최초다. K팝 걸그룹으로는 지난 2012년 카라 이후 2번째, K팝 아티스트로는 카라 및 동방신기(2015년), 빅뱅(2017년)에 이어 4번째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일본에서 데뷔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 '#트와이스'는 일본 데뷔 작품으로 트와이스에게도 뜻깊은 앨범이다. '티티' 일본어 버전은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어로 부른 뜻깊은 곡이고 원곡과 함께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좋다. 앞으로 '원스' 여러분들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기쁨을 전했다. 일본 레코드 협회가 주관하는 일



본 골드 디스크 대상은 1986년에 설립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캔디팝'은 발매 2주 만인 지난 21일 출고량 40만장을 돌파했고 '#TWICE'와 'One More Time'의 이달 23일 기준 출고량인 32만 6400여장과 32만 9400여장의 출고량을 합해 3장 음반 통산 100만장을 출고량을 넘어섰다. 일본서 한국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같은 해 싱글과 앨범 모두 플래티넘 인증 및 일본 첫 앨범과 첫 싱글을 모두 플래티넘으로 등극시킨 한국 최초 아티스트가 된 트와이스는 이번 '캔디팝'으로 해계 아티스트 최초로 '데뷔 싱글부터 두 작품 연속 첫 주 판매 20만장 돌파' 기록도 수립하며 '신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트와이스가 향후 일본서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들을 수립할지 더욱 관심사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 판타지 파크(TWICELAND ZONE 2 : Fantasy Park)'의 막을 여는데 이어 일본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5월 26일과 27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6월 2일과 3일 오사카 성 홀에서 총 4회로 공연을 열고 인기 열풍을 고스란히 콘서트 무대로 이어간다. 특히 이번에 4회로 진행되는 일본 콘서트는 지난 1월과 2월 진행한 첫 쇼케이스 투어와 비교해 볼 때 더욱 규모를 넓혀 1만명 이상 수용할 아레나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무대로 벌써부터 현지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4월 초 가요계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국내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삐그덕히어로즈' 애매한 B급 정서, 혹평과 호평 사이



어디지 모르게 애매한 B급 정서다. 파일럿 '삐그덕 히어로즈'는 정규 편성 될 수 있을까. 26일 방송된 MBC 새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삐그덕 히어로즈'에서는 우현, 지이언티, 안정환, 유병재, 샘 해밍턴, 허정민, 세븐틴 호시 등 기존의 영웅 이미지와는 상반된 '영웅 후보생' 7명의 첫 만남이 공개됐다. '삐그덕 히어로즈'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내건 가상 비밀 조직에서 영웅의 전형

적인 신체 조건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을 강제 소집. 그들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영웅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담은 관찰 예능프로그램이다. 이날 7명의 영웅 후보생은 비밀 기지에 입소해 인사를 나눴다. 샘 해밍턴은 비밀기지의 분위기에 "영화 '킹스맨' 같다"고 평했고, 유병재는 "영화에서는 조금 있으면 비밀기지에 몰이 차지 않나. 한 명씩 죽는다"고 말했다. 이에 허정민은 "맞다. 원래 한 명씩 죽는 설정이다"며 거들었고, 유병재는 "데꿀려면 모르겠는데, 파일럿에서 죽는 건 어울린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화면을 통해 영웅 후보생들의 관련 영상이 공개됐다. 특히

영웅 후보생 우현을 소개하기 위해 등장한 배우 김광식은 "현이 형을 생각하면 작은 거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비록 생김새가 청국장 잘 빚어놓은 것 같지만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서 선봉에 섰던 모습, 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했던 모습들이 있다. 또 리더십도 강하다.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에 우현은 "축사러워하며 겸손을 표했다. 이후 캡틴 흥진경과 요원 딘딘이 등장, 영웅 후보생들에게 미션을 내렸다. 이들은 호두 깨기, 트램펄린 위에서 식사하기 등 황당한 미션들을 수행하며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됐다. 이처럼 다소 어설픈 7명의 영웅 후보생

들은 수많은 미션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며 '어벤저스'로 거듭나게 됐다. 첫 방송 전 장승민 PD 역시 "'삐그덕'도 괜찮아" 하는 B급 정서가 프로그램의 특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내내 계속해서 이어진 게임들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다. 기존 예능에서 한 번쯤 본 듯한 게임들을 끊임없이 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출연진의 매력을 100% 살릴 수 없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생각 없이 보기 좋다" "와간 어설픈 출연진이 매력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프로그램 컨셉트는 신선한데 게임들이 진부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시청자들의 엇갈린 반응을 받아든 '삐그덕 히어로즈'가 2회에 서는 탈락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음력 1월 13일)



▶**성격** 목욕의 용서는 낳을 수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운 법. 7, 1, 4, 2, 8 성씨 마음의 화를 풀고 대화로 설득함이 좋을 듯. 4, 5, 7월생 자녀가 처한 어려움은 부모가 사랑으로 대화해 해결할 수 있다.



▶**사치**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풀리면 좋으련만 4, 6, 7월생 산 넘어 산이니 정상이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까지와 달리 해보는 것은 어떨지. 1, 4, 8 성씨와 동업하면 가능하다. 부부가 화합하면 한층 좋겠다. 기분 상했다고 한잔하지 말고 일찍 귀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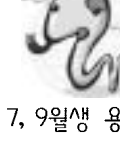
▶**운명** 2, 4, 6월생 서, 북쪽 이력서 불인 곳에서 오전에 반가운 소식이 올 듯. 7, 1, 4, 8 성씨 신경전은 그만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 시간을 끌다 꿩도, 닭도 놓친다. 사업가에게는 더욱 중요한 한 마디다. 가까운 사람 탓에 올 수 있다.



▶**건강** 떡잎을 보면 그 나무의 성질을 읽을 수 있듯 1, 4, 8 성씨 직장인 확실한 업무 처리로 상사의 눈에 들겠다. 본인 관리에 힘쓰라. 주위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함을 알라. 병원 문을 두드려 종합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운명** 1, 4, 8, 2, 8 성씨 사회의 좋은 풍토라면 과감히 받아들여라. 도전은 당신을 발전시킬 발판이 된다. 2, 5, 8월생 친형제라도 금전 관계로 시비가 있겠다. 한 보를 양보하는 것도 좋겠다. 서쪽이 좋은 방향이고, 파란색이 행운의 색깔이다.



▶**사치** 7, 1, 4, 8 성씨 새로운 길에서 스타트를 잘 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용기 있고 과감하게 자기 육신을 투신함이 좋을 듯. 지금 힘든 일 주위 선배 도움도 좋을 듯. 5, 7, 9월생 용, 원숭이, 닭띠는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건강** 4, 6, 8월생 옛님이 갑작스레 보고 싶겠으나 액운이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1, 4, 8, 2 성씨 동, 서쪽에서 사업 자금 조달을 도울 자 나타날 수. 그러나 덤벼 받으면 후일 액운이 서린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운명** 장대한 욕망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듯하나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할 때다. 4, 10, 12월생 소신껏 한 가지에만 열중하는 추진력을 보강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라.



▶**운명** 믿었던 임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1, 4, 8, 2 성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선수를 치라. 과감히 도전하는 자만 승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2, 9, 11월생 자기 사업을 변동하기엔 아직 이른 편.



▶**사치** 잘 아는 길이라도 무서워 때가 있는 법. 3, 4, 6월생 여성 발길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라. 애정은 도를 지나치면 임이 떠난다. 사탕발린 언행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 7, 1, 4, 8 성씨 투자하려면 서적, 저물 쪽이 행운을 갖다 준다.



▶**건강** 7, 1, 4, 8 성씨 사업이 잘 된다 해서 안주하면 미래의 잠가버리는 행위다. 한층 새로운 구상으로 대처해야 한다. 1, 5, 12월생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다. 주변을 잘 살피고, 자가 운전자는 가급적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는 것이 상책.



▶**운명** 1, 4, 8, 2 성씨 투기는 삼가라.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가정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듯. 참고업, 음식로품업은 운수 대통할 수. 5, 8, 11월생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후회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 매사 매진하라. 북쪽 사람이 힘이 된다.